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총화중 총무원장상)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며 생활하겠다고 원을 세워본다. 꼭 물질로만 주려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편안 안한 얼굴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시라 믿기에, 부드러운 말과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자안애어(慈顏愛語)'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불교에 귀의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다. 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비는 마음, 그리고 오직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도 변하게 됐다.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스님들이 쓰신 서적을 탐독했다. 또한 방송을 듣고 현대불교신문을 정기구독했다. 스님들께서 지면을 통하여 법문해주신 주옥같은

법문 듣고 불서 읽으며 이웃 위하는 마음 생겨

은 글을 읽은 덕분에인지 나만을 위한 기도와 무엇을 받기만을 원하고 갈구하던 마음이 이제는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됐다.

항상 상대에게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했었고 조그마한 것을 줄 때에도 아까워서 몇 번을 생각한 다음 줬던 내 마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기뻐하는 마음보다 무엇인가를 건네는 마음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립들이지만, 최근 이웃에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께서 이사를 오셨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



그림 · 김흥민

“왜 짝짝 채우려 했었나... 나누면 이렇게 편한걸”

게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을 빈 다음에야 두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심을 알았다. 어느 날 우리 가게 앞에 힘겹게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스크림 하나를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는지 날 볼 때마다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너무나 고맙습니다”하고 그 일이 있는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살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가게를 찾으신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셔서 또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고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려나오는 마음에서 드린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렇게 고마우셨나 보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넘어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만날 때마다 “젊은이 고맙습니다” 하는 할아버지 말씀이 나를 아직도 속스럽게 한다. 어느 때는 가게를 찾으셔서 내가 과일

그냥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됐더라 손사레까지 치시면서 극구 사양하셨다. “할아버지 시원하니가 드세요”하며 결별지를 까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우셨는지 날 볼 때마다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너무나 고맙습니다”하고 그 일이 있는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살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가게를 찾으신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셔서 또 말씀하신다. “애기 엄마, 고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려나오는 마음에서 드린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렇게 고마우셨나 보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넘어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만날 때마다 “젊은이 고맙습니다” 하는 할아버지 말씀이 나를 아직도 속스럽게 한다. 어느 때는 가게를 찾으셔서 내가 과일

한개라도 내어드리는 날이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

길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쳐 인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꼭 ‘애기엄마’ 하고 부르신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을 때마다 조그마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예전에 미처 몰랐었다.

지금에야 후회가 된다. 나누기보다 왜 그토록 짝짝 채우려고만 했는지... 비우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앞으로도 내 욕심대로 짝짝 채우기보다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 그리고 불자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갖기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 굳게 발원해 본다.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를 보니 미워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어떤 행동이라도

내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인연에 감사할뿐

이해하게 되며 오히려 더욱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내게 조금만 섬섬하게 대해서도 열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 가득차기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괴로워졌었다. 남에게 짐을 뱌려면 내 입에 먼저 침이 고여야 하듯이, 남을 미워하려면 내가 먼저 괴로움을 느껴야 하는 어리석음으로 내 자신을 괴롭

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미워하는 감정에 앞서 상대를 대할 때 측은지심의 마음을 먼저 가지니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가 없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게 화평하다. 이렇게 생활하니 우리 아들 딸도 바르게 성장한다. 정말 고맙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주신 은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미혹한 저를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무 쇠가모니불, 나무 쇠가모니불, 나무 쇠가모니불.

킬레이 수행일기 <상>



박선식 광명사 의뢰기 대표

나의 참선공부는 햇수로 8년째다. 입실(入室, 1대1 점결)을 지도해주는 스승은, 종달 노사의 뒤를 이은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인 서강대 박영재 교수다. 1996년 서강대 수도자 대학원(현재는 신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여러 신학과목 중 선불교라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 있어 수강을 신청했는데, 그때 박 교수의 교과목은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내게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는 여김없이 견주굴(見主窟 : 선도회의 서강대 모임장소인 성당 옆 기도실)에서 도반들과 함께 모여 참선을 한 후 입실지도를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물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일들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잘못 되었을 경우 스스로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경우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만약 스

승은 투과한 화두에 대한 집집 화두가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힘들게 하 나씩 관문을 투과해가면 그때마다 아랫배에는 자신감이 축적되고 마음은 평정을 되찾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일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하는 선도회의 철야 용맹정진은 이러한 수행정진에 보다 큰 기둥이 되어 주고 있다.

‘선불교’ 수강 인연으로 화두참선

자신감 평정심 축적...삶의 에너지원

승이 없다면 마치 사공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경우와 같다. 배에 사공이 없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도 이를 알기 힘들고 방향수정 또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는 제자리에서 뿔뿔히 나 지표를 잃고 떠내려가기 쉽다. 그래서 ‘나’라는 배를 인도해주는 스승과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이 있기에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참선수행 중 스승 앞에 제자가 마주 앉아 자신의 경계를 내보이는 ‘입실’은 천주교에서 자신의 죄를 하느님과 사제께 고백하고 신앙의 지표를 구하는 ‘고해성사(告解聖事)’와 기능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입실지도는 스승 앞에 제자가 마주 앉아 그간 뒤의 경계를 나뉘면 스승은 듣고 있다가 그릇된 가지들은 가지없이 쳐내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근기에 따라 이끌어 줄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미 닭이 달걀 껍질을 쪼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졸락동시(啄啄同時)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어떻게 투과하는 화두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매주 입실하지만 몇 주 또는 몇 개월 만에 간신히 투과하고, 어떤

일상사 거의 모든 과정을 선적(禪的) 마음가짐으로 투신해 본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주인공이며, 내 마음이 바로 존재와 일치하는 것이며, 불기에서 말하는 여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선입을 쌓는 평상심도(平常心是道)의 경계에서 활보하는 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민속의학자로서 자연건강을 연구하는 나의 직분에서도 참선은 매우 유용하다. 마음자체가 참선을 통해 단순해지며 깊어져 연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대담하게 응대하여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참선하는 크리스찬인 나는 천주교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靈)에 일치하는 좋은 방법으로 참선을 소개하고 있다. 불자들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들의 어록에 포함된 종지(宗旨)를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양: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33년 전통의 웅변·연설·설법의 도장

설법대학 제2기 학인모집

33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교정토 구현과 대중화살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님 및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 학장 표 자 원 합 장

-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2004년 3월 12일 ~ 4월 12일
◇ 개 강 일: 2004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 강의일시: 매주(목) 오후 2시 ~ 4시

- 모집대상
◇ 포교사 자격 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화술 스피치를 요하는 일반인 및 지도자
◇ 시·예·동양화, 서예, 취미 및 전공 희망자
◇ 학원 설립 및 강사 희망자
◇ 대학진학 특기 장학생 희망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1통)
◇ 증명사진 3매

- 전국 웅변대회 개최
제34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웅변대회
◇ 일시: 2548년 5월 16일 오후 1시

- 교수진
불교교리
◇ 표지원 스님 대한불교웅변인 협회회장, 광명사 주지, 시대문구 사암연합회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교무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 웅변인 협회회장.
설법, 웅변, 연설, 화술
◇ 이종래 대한웅변인협회 전 회장, 국사원 원장.
◇ 손은봉 MSA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대동명상 수상(웅변부문)
성우, 방송
◇ 김계원 KBS 성우
시·예, 동양화, 서예
◇ 지춘하룡 단원전통 한국문인회,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건강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세생평명회 대표.
◇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한국본부 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사무총장, 국제교사
◇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키랑가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전화: (02)732-5509, 736-1895, 735-1896 팩스: (02)723-4350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광 명 사 (3호선 무학재역 3번출구)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상보호하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Advertisement for LED bulbs. It features four images of different bulb types: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연등용 LED전구, and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LED bulbs, such as longer life, lower energy consumption, and safety.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ibosa.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3호)
TEL: (02)2266-9098, 7550 FAX: (02)2266-7557 E-mail: kibosa@kornet.net